액세서리와 지각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매력성 평가

이명희* · 김연정 · 정승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본 연구는 액세서리 착용이 여성의 매력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의복유형과 액세서리,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액세서리가 매력성 평가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법은 질문지와 자극물을 사용한 조사연구방법이었다. 자극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40대와 20대의 타원형 얼굴의 여성 2명을 선정하였으며, 의복 유형은 재킷과 흰색 티셔츠를 택하였다. 액세서리의 종류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목걸이, 머플러, 모자를 착용한 경우를 설정하였다. 실험연구의 한계로 인하여 자극물은 총 12가지 종류로 제작하였다. 40대 모델은 8가지 스타일로서 티셔츠, 셔츠에 목걸이, 티셔츠에 앞 머플러, 티셔츠에 모자, 재킷, 재킷에 앞 머플러, 재킷에 옆 머플러, 재킷에 모자를 착용하였다. 20대 모델은 티셔츠, 티셔츠에 목걸이, 티셔츠에 앞 머플러, 티셔츠에 모자를 착용한 모습으로서 4가지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재킷은 긴 소매와 테일러드 칼라가 있는 검정색이었고, 티셔츠는 짧은 소매의 라운드 네크라인형으로서 흰색이었다. 재킷에는 테가 6m 정도 넓이인 햇(hat)을 착용하였고 티셔츠에는 캡(cap)을 착용하였다. 모델이 실험용 의복과 액세서리를 착용한 후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한 후 컴퓨터에 의하여 자극물을 출력하였다. 자극물은 허리둘레 아래 20 정도까지의 상반신의 모습으로서 크기는 9×13cm였고, 배경은 연회색이었다. 매력성 평가에 사용된 의미미분척도는 7점 양극 형용사 쌍 8문항이었다. 피험자는 서울지역의 여대생 178명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12개의 자극물이 매력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0대 여성의 경우 재킷에 머플러를 장식한 모습은 세련성이 가장 높았고, 특히 재킷에 앞 머플러를 착용한 것은 가장 우아하게 평가되었다. 40대 여성이 티셔츠에 모자를 착용한 것은 가장 어울리지 않게 보였으며, 또 아무런 장식이 없이 티셔츠만 착용한 것은 매력성이 가장 낮게 지각되었다. 20대 여성이 티셔츠에 모자를 착용한 것은 가장 어울리며, 발랄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평가되었다.

이원변량분석 결과 의복유형과 액세서리는 청순한 이미지와 매력적인 이미지 평가에 대하여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티셔츠에 앞 머플러 착용은 재킷에 앞 머플러 착용보다 청순한 이미지가 더 높게 평가되었다. 재킷에 모자 착용은 티셔츠에 모자 착용보다 매력적인 이미지가 더 높게 평가되었으나 재킷에 머플러 착용과 티셔츠에 머플러 착용 사이에는 매력적인 이미지의 차이가 없었다.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액세서리는 세련된, 어울리는, 귀여운, 매력적, 발랄한, 우아한 이미지의 6개 특성에 대하여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40대 여성은 20대보다 티셔츠에 앞 머플러를 착용한 것이 더욱 세련되며, 어울리고, 우아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20대는 40대보다 티셔츠에 모자를 착용한 모습이 더 매력적이고, 세련되며, 귀엽고 발랄하게 평가되었다. 또 티셔츠에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의 경우는 20대가 40대보다 더 귀엽고 발랄하게 지각되었으나, 우아한 이미지는 40대가 20대보다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재킷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것보다 머플러를 착용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티셔츠에 모자를 착용하는 것은 중년 여성에게는 그다지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으나 젊은 여성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액세서리 착용에 따라 여성의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